

국내 전기차 1년새 4배 컸다

8월까지 7278대 팔려

아이오닉·르노삼성 SM3 순

수입차 업체들은 역주행



기아차 쏘울 전기차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규모가 불과 1년 사이 4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의 전기차가 잘 팔리는 반면,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한 수입차 브랜드 전기차는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차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내 전기차 누적 판매량(판매대수가 공식 집계되지 않는 테슬라 제외)은 모두 7278대로, 작년 같은 기간(1975대)의 3.69배에 이르렀다.

모델별 판매 순위에서는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전기차)이 4708대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르노삼성 SM3 (969대), 기아차 쏘울(870대), 한국지엠(GM) 볼트(392대) 등의 순이었다.

작년 동기대비 증가율에서도 아이오닉(382.9%)이 정상 달리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거의 5배가 팔린 셈이다.

SM3(214% ↑), 쏘울(124.8% ↑) 역시 판매량이 1년 전의 2~3배로 경종 뛰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생산한 전기차 총 판매량(6580대)은 지난해 같은 기간(1828대)의 3.6배까지 치솟았다.

한국GM 스파크 전기차 단종과 기아차 레이 전기차 판매 감소(-51.7%) 등 약재도 전체 전기차 시장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수입, 판매하는 OEM 전기차도 651대나 팔렸다. 한국GM이 올해 4월부터 팔기 시작한 볼트(392대), 같은 달 출시된 르노삼성의 트위지(259대)가 그 주인공이다.

하지만 수입차 업체들의 전기차들은 '역주행'하고 있다.

BMW i3의 올해 누적 판매량은 11대에 불과하다. 작년 같은 기간(100대)의 10분의 1 수준이다.

BMW는 내년 1분기 중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린 'i3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을 선보이며 반전을 노릴 예정이다.

수입 전기차의 '터줏대감' 격인 닌산 리프 역시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리프의 누적 판매량은 4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47대)보다 오히려 줄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폴크스바겐 디젤 게이트 여파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중심 정책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전기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업체간 전기차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성기자bigkim@r-연합뉴스

젊은층 카드 결제 주유·신차구입 씬씀이 크게 줄어

20대 11.2%→10.8%

30대 26.5%→24.1%

50대·60대는 늘어

신용카드 결제에서 고령층 비중이 커지고 있고 30대 젊은층은 주유와 신차구입 '씬씀이'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신한카드 트랜스연구소에 따르면 신한카드의 연령별 소비 동향에서 50대와 60대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2014년과 올해 상반기 신한카드 지출액을 비교하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8.7%에서 11.1%로 2.4%포인트(p) 높아졌다. 50~59세 소비 비중도 같은 기간 21.1%에서 22.4%로 1.3%포인트 확대됐다.

우리나라에서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20~29세 비중은 11.2%에서 10.8%로, 30~39세 비중은 26.5%에서 24.1%로 각각 축소됐다.

최근 연령별로 신용카드 결제 품목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3분기~2015년 2분기와 2016년 3분기~올해 2분기를 살펴보면 30대 젊은층의 주유소 지출액이 13.7% 줄었고 국산신차 지출액은 25.6% 급감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30대의 주유소 지출액은 유가 상승 때문에 줄었다가 최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세일가스 등으로 2014년 하반기

급락한 국제유가는 한때 배럴당 30달러를 밑돌기도 했지만, 작년 하반기에 상승세를 탔다.

30대 주유소 및 국산신차 지출액 변화 국제유가 영향으로 주유소 가격이 오르자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젊은층이 빠르게 소비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산신차 지출액이 줄어든 것은 차량공유, 렌탈 등이 확대되는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0대가 사들인 승용차는 14만 4360대로 작년 같은 기간 16만 2422대보다 11.1% 감소했다.

반면 최근 차량공유 서비스인 '쏘카'와 '그린카'는 20~3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밖에 2014년 3분기~2015년 2분기와 2016년 3분기~올해 2분기 30대의 종합병원(-15.3%), 서점(-29.1%), 화장품(-14.6%) 지출액도 크게 줄었다.

이와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같은 기간 세금, 통신요금 등을 포함한 '대인서비스 및 용역제공업체' 지출액이 79.1%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할인점(28.9%), 일반음식점(35.3%), 홈쇼핑 및 인터넷판매(38.8%) 등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신한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는 '20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홍익대 산학협력단, 한국은행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현대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서 아이오닉 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

유럽서 2200개 충전시설 갖춰

현대자동차가 유럽에서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활용한 전기차 전용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대차는 지난 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에서 '암스테르담 아이오닉 카셰어링 서비스 론칭 행사'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론칭 행사에는 피터 리진스 암스테르담 부시장과 이운영 주네덜란드 대사, 김형정 현대차 유럽법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카셰어링은 사용자의 차량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필요할 때에만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기차 전용 카셰어링 서비스는 현대차가 유럽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것으로, 아이오닉 일렉트릭 100대를 활용해 암스테르담 일대에서 운영된다.

서비스 이용 고객은 관련 홈페이지(<http://www.IONIQcarsharing.nl>)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회원가입을 하면 근처에 있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을 손쉽게 예약할 수 있다.

디지털로 전송되는 암호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물 자동차 키가 없어도 되고, 최소 1분부터 최장 7일까지 고객이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후에는 암스테르담 시내 곳곳에 있는 차량



지난 5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열린 '암스테르담 아이오닉 카셰어링 서비스 론칭 행사'에서 카셰어링에 활용될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배경으로 이운영(왼쪽부터) 주 네덜란드 대사, 김형정 현대자동차 유럽법인장, 피터 리진스 암스테르담 부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반납소에 차량을 반납하면 된다.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을 비롯한 국가 전역에 2200여 개에 달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어 아이오닉 카셰어링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아이오닉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100

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식 급속 충전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토마스 슈미트 현대차 유럽법인 부사장은 "현대차의 유럽 첫 전기차 전용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암스테르담의 기후 변화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향후 꾸준히 친환경 모델 공급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잘 나가던 디젤차 유럽서 몰락

상반기 가솔린차 365만대 판매... 디젤차 추월

전통적으로 디젤 자동차가 강세를 보이던 유럽에서 디젤차 판매가 8년 만에 처음으로 가솔린차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업계와 유럽자동차협회(ACEA)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럽연합(EU) 15개국에서 판매된 가솔린차(신차 기준)는 365만8099대를 기록, 349만1430대가 팔린 디젤차를 앞섰다.

유럽 시장에서 가솔린차 판매가 디젤차를 추월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가솔린차 판매는 9.9%(32만8615대) 증가했으나 디젤차는 4.2%(15만2323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신차 판매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가솔린차가 48.5%, 디젤차는 46.3%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포인트 늘고 4.1% 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유럽에서 디젤차 비중은 2011년 56.1%를 기록한 이래로 매년 감소해왔다. 작년에는 49.9%를 기록해 점유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더니 올 상반기에는 아예 가솔린차에 밀린 것이다.

이는 2015년 불거진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및 담합 등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진 데다 유럽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디젤차 퇴출 정책이 속속 도입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유럽에서는 디젤차를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해 독일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국가에서 2025~2040년까지 디젤차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연료 가격이 저렴하다는 디젤차의 강점이 저가형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의해 잠식된 것도 판매 위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올 상반기 유럽에서는 친환경차 판매가 눈에 띄게 늘었다.

EU 15개국에서 판매된 하이브리드차는 19만8579대, 전기차(플러그인 포함)는 9만5442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58.2%, 37.0% 성장했다.

연합뉴스

광양,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락희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10평
- 2012년 신축, 전망 좋음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정가 12억
- 매매 - 7억 8000만원
- 용자 3억 3000만원 포함

비금도, 팟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 무인도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목포에서 50분 (쾌속선)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 장기투자 가치 최고
- 매 14억 (현금2억+부동산과 교환 가능)

나주, ㄷ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5200만원 (조정가)

“급 매”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빙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
- 온천지구 내 (주)바리오 화순'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

주인직매 010-3605-5000